中스님, 자비로 동물들을 구하다

8000 마리 이상 유기동물 구조

중국 매년 5000만 마리 유기
1993년경 반려동물 구조시작
SNS활용해 해외입양도 전개

박영빈 객원기자


구조한 유기견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지샹 스님(좌). 사진출처=시나통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문제가 전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유기동물들을 구조해 재입양하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6월 24일, 국제 불교뉴스포털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와 'AFP 통신' 등은 동물을 구조하는 지샹(智祥) 스님을 소개했다.

상하이 교외에 위치한 바오언쓰(報恩寺)의 주지 지샹(智祥) 스님은 지금까지 종류에 관계없이 상하이와 교외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해 왔다. 현재 사찰과 스님이 세운 보호소엔 8000여 마리의 유기견과, 200여 마리의 유기묘, 거위와 공작새와 같은 조류들이 함께 있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중국에서는 매년 약 50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매년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중국 중산층의 폭발적 증가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양 증가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와 인식 확대는 더뎌 무단으로 유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샹 스님은 "반려동물을 싫어하고 혐오하여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동물들을 돌보는 지식이 없는 소위 애호가들에 의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지샹 스님이 최초로 구조한 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였다. 스님은 "정확히 언제부터 구조활동을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1993년경으로 기억한다. 농가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구조를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현재 스님은 매주 2회 경찰서나 소방서서 구조한 유기견들을 보호소로 데려오고 있다. 스님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소식에 스님이 있는 바이언쓰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스님은 "나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생명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며 "힘들지만 한 마리라도 더 구해야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이 지금까지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데 쓴 비용은 1200만 위안(한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이 비용을 사찰 보시금과 도반스님들 및 속가 가족들에게 지원받아 해결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스님의 활동과 상황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들이 모이고 있다. 스님은 외국어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SNS를 활용, 2019년부터 영미권으로 약 300여 마리의 유기견들에게 새 가족을 이어줬다.

스님은 "언젠가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해외로 입양 보낸 개들을 다시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스님은 동물구조에 대한 불교도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출가한 지 얼마 안됐을 때, 불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불자는 어떤 실천행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단지 불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불교는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며 "많은 불자들이 생명보호와 사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혼란의 미얀마 승가, 비판 직면

군부 회유에 일부 스님 지지,
6월 27일 외신 연이어 보도

민주열사 시타구 스님 전향
불교민족주의 등 깊게 연결
대다수 승단은 민주화 지지


최근 공개적인 군부 지지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시타구 사야도 스님. 사진출처=포린 폴리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미얀마 스님들이 군부를 옹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던 스님도 군부 지지에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6월 27일 미국 평론지 '포린 폴리시'를 비롯한 외신들이 미얀마 승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분석을 보도했다.

국민 9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스님들의 민주화 운동 참여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2007년 스님들의 주도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은 가사 색을 딴 '샤프론 혁명'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이번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정부 수립 후 극단적인 불교민족주의가 불교계 내에 강해지며,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도 승단 내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킨 마르키 연구원은 "불교가 혜택을 받아왔던 군부시대의 향수, 젊은 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 약화, 소수민족의 부각 등으로 일부 불교계 인사들이 가진 민주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함께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정부 지도하에 불교계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종교부 예산이 감축 추진된 것도 승단의 불만과 군부에 대한 지지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와 양곤 등지에서 스님들 주도하에 정부 규탄 시위도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민주정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승단 고위직 스님들이 친군부 성향이 있어 승단의 민주화 시위 참여를 금지시키고, 참여한 스님들을 사원에서 내쫓는 등 보복을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2007년 샤프론 혁명 당시 민주진영을 이끌던 스님들을 군부가 감금하며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군부를 지지하는 스님도 나와 비판을 받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회참여로 존경을 받으며 영향력을 발휘해 온 시타구 사야도 스님으로, 이 스님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군부의 정당성 지적뿐만 아니라 군부가 불교도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가해 미국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반이슬람 시위를 주도하고 불교민족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위라투 스님도 군부 쿠데타 직후 군부에 의해 석방되어 미얀마 시민사회의 미얀마 승가에 대한 실망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총선결과에 불복한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현재 내전 양상으로 번진 상태다. 지금까지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군부는 민주진영을 불법 폭력시위대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여행의 향수를 느끼다

美, 태국사원 '일요 타이 푸드마켓' 인기


일요 타이 푸드마켓에서 구매한 태국음료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출처=더 달라스 모닝 뉴스

6월 28일 '더 달라스 모닝 뉴스'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태국 불교사원에서 주최하는 일요 타이 푸드마켓 재개 소식을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 노스 댈러스의 포레스트 레인 외곽에 있는 태국 불교 사원은 지난 15년간 포교 및 운영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일요 타이 푸드마켓을 운영했다. 사원 내 주차장에서 태국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여 태국 음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1년 가까이 잠정적 휴업을 선언했던 이 사원은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6월 초, 일요 타이 푸드마켓 운영을 재개했다.

태국 불교사원 켄 테포테 박사는 "사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전통 태국음식이다. 쏨땀(파파야 샐러드)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파는 쏨땀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춰 레시피를 바꾸기 때문에 매우 달콤하다. 그러나 우리 사원에서 판매하는 쏨땀은 태국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해 진정한 태국의 맛을 고수한다"며 "일요 타이 푸드마켓에서 판매하는 태국 음식을 상품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노점 형태를 지속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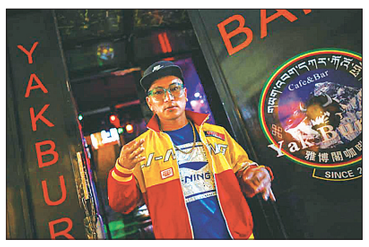
일요 타이 푸드마켓은 입소문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여행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근거리 여행으로 태국 사원을 택했다. 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밀려드는 손님으로 몇몇 노점은 일찍 문을 닫았다.

자원봉사자는 "태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와 유산을 나누는 것이 즐겁다. 우리 시장이 입소문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며 "이곳에 방문하면 태국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사찰에서의 여름이 태국 여름과 같다"고 전했다.

일요 타이푸드 마켓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인기있는 음식은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오전 중 방문을 권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와 저항 노래하는 티베트 래퍼



티베트 힙합계를 이끄는 MC 텐진 사진출처=AFP

티베트인 래퍼가 노래를 통해 불교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28일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중국에 저항하는 래퍼 MC 텐진을 소개했다.

티베트에서 랩이라는 음악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장르다. 티베트 랩의 대부 'MC 텐진'은 에베레스트 산기슭 오지에서 태어났으나, 학창시절 에미넴과 50센트의 미국 힙합을 접하고 래퍼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사회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중심 소재로 잡는 랩이라는 장르는 끊임없는 중국정부의 불교·인권탄압에 저항하기에 좋은 소재였다.

MC텐진은 전통적인 불교음악을 바탕으로 한 비트에 티베트어로 중국의 탄압 반대를 가사에 담았다. 또한 잊혀가는 티베트의 전통을 노래하며 티베트의 문화적 자부심과 불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티베트 랩을 영어로 번역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티베트인 데첸 펜바는 "티베트의 예술가들은 현지의 정치적인 상황상 분명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청중에게 메세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티베트어, 영어, 중국어, 네팔어 등의 4개 국어를 혼합하여 랩을 하는 MC 텐진은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고 팬들과 교류하기 위해 라이브 쇼와 함께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주로 사용한다. 티베트 팬들은 "MC 텐진의 랩은 전통적인 불교 음악을 바탕으로해 티베트 인들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랩의 리듬과 잘 어울린다"며 호평을 보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